

현상 진단

〈 현 상황 평가 〉

- 정치권이 가세한 태극기·촛불 집회 등 보수-진보(종북) 세력간 대립 지속
 - 태극기 집회 : 13회 연인원 1,000만 여명 / 촛불 집회 : 16회 연인원 1,325만 여명
 - 태극기 집회, '평화투쟁과 다른 방법 동원' / 촛불 집회, '탄핵 안되면 혁명' 주장
- 북극성-2호 시험발사(2.12.)에 이어 오는 3월 韓·美 KR/FE 연습에 맞춰
北 핵실험·장거리미사일 발사 등 군사도발 가능성 상존
- 한편, 현행 계엄계획은 평~~보~~
전시 상황에 맞춰 개념 위주로
작성되어 있어 現 시국에
적용하는데 다소 제한

〈 탄핵심판 선고 이후 전망 〉

- 탄핵심판 결과에 따라 보수세력 또는 진보(종북)세력 준동, 대립 격화
 - * 양측 모두 탄핵심판 결과에 불복, 헌법재판소 점거 등 사법기능 무력화 시도
- 反정부 소요사태(집회·시위 등) 전국 확산 및 과격화 양상 표출
 - * 무력진압 과정에서 사상자가 다수 발생하는 등 反정부 여론 고조
- 경찰력만으로 치안질서 유지가 불가능할 정도로 사회질서 마비
 - * 청와대 등 주요시설 점거 시도로 軍 병력에 의한 시위진압 불가피
- 사이버上 유언비어 난무, 보수 또는 진보(종북) 세력에 의한 폭력투쟁 등으로 인해 행정·사법 기능 수행 제한, 국정 마비 초래

[계엄 수행기간 : 인용시 2개월 / 기각시 9개월]

※ 국가비상사태 조기 안정화를 위한 비상계엄 선포 필요성 대두